MB정부 하반기 강공 드라이브 제동

與 국정운용 차질…野 주도권 확보 박차

신재민·이재훈 낙마로 극한대립은 해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자진사퇴한데 이어 신재민, 이재훈 장관 내정자도 잇따라 낙마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단 이들의 사퇴로 그동안 정점으로 치달았던 여야의 대립 상황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40대 젊은 총리를 내세워 소통과 통합을 강화하려던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국정 구상에 차질은 물론 7·28 재보선 승리로 한때 정국 운영에 주도권을 잡은 듯했던 여권의 기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초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8·8 개각 인사청문회에 따른 부정적 여론 속에서도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한다는 구상이었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정면돌파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7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이후 당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불가론'이 확산되면서 마냥 강공을 고집하다가는 집권 후반기 정국 운용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 주류들마저 속속 돌아서는 마당에 8·8 개각이 여야 대치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당청 관계마저도 갈등 양상으로 빠드릴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등의 강한 지탄을 받았던 신재민, 이재훈 장관 내정자가 이날 김태호 후보자에 이어 자진 사퇴 의사를 나타낸 것은 이러한 안팎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권은 총리 후보자와 일부장관 내정자들의 퇴진 충격 속에 정치 상황의 변화와 민심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8·8 개각에 따른 일련의 '청문 정국' 사태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주도면밀한 파상공세를 통해 김 후보자의 낙마라는 '대어'를 낚은데 이어 장관 내정자 2명의 사퇴까지 이끌어내면서 7·28 재보선 완패로 상실했던 정국 주도권을 다시 움켜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예산국회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승기를 잡음으로써 현 정권이 역점과제로 추진해왔으나 야권이 반대해온 4대강 사업 등 주요현안들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극한 대치상황이 풀리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예산 및 법안을 비롯한 국회 일정과 의제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펼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이 '청문 정국'의 승기를 계기로 4대강 사업과 대북문제 등 여야 간의 이견이 현격한 현안에 대해 대대적 공세에 나설 가능서이 높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야당도 정부 여당의 진심을 이해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논평했고, 민주당 측은 "조현오 내정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반격,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오전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연차 연루 잇단 거짓말에 '치명타'

與 내부까지 번진 사퇴여론에 '두 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끝내 낙마했다. 지난 8일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불과 21일 만이다. 후보자 지명 당시 "소통과 통합의 아이콘이 되겠다"면서 화려하게 정치 전면에 부상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말바꾸기에 따른 사퇴 압박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당초, 김 후보자 측은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문회에서 명쾌하게 해명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결국에는 21일 만에 물러나는 단명 총리 후보자라는 오명으로 이어졌다.

결정적인 것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었다. 그는 24일 청문회에서는 2007년 이전에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다음날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2006년 가을에 골프를 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정치자금 대출과 복잡한 채무관계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이런 말 바꾸기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청문회 이후인 지난 27일 공개된 2006년 2월 박연차 전 회장과 나란히 찍은 출판기념회 사진은 결정타였다. '양파 총리'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됐다.

청와대 측에서는 일단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사퇴 불가론을 고수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의 입지를 크게 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말이 되면서 여권 핵심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만큼 자진사퇴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여기에 김 후보자의 계속 버틸 경우 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자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이날 광화문 개인사무실 건물 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더 이상 누가 돼서는 안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향후 입지와 관련해서도 이런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 추이 등을 볼 때 별다른 타개책이 없는 상황에서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상처만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격적인 총리 후보직 사퇴를 통해 상처를 최소화하며 차기 총선 등을 통해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총리 서리를 포함해 역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중도하차한 사람은 신성모·허 정·이윤영·백한성·박충훈·이한기·장 상·장대환씨 등 8명이고,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청문회 검증서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이번이 3번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안타깝지만…고심어린 결단"

민주당 "사필귀정…대통령 사과해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서퇴와 관련, 여권은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지만 야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나아가 사퇴하지 않은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도 하자가 있는 경우 자진사퇴하거나 임명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29일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후임 인선에 곧바로 착수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태호 총리 후보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총리 후보자 인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날 김 후보자를 비롯해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장관 내정자들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고 당내에서조차 '불가론', '낙마론'이 확산됐다는 점에서 민심에 순응한 자구책이었다는 것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고심 어린 결단으로 평가한다"며 "한나라당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통의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같이 패륜적 망언을 일삼으면서 최소한의 공직윤리마저도 저버린 인물들은 국기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절대로 고위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내놓은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진수희 보건복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상임위별로 자진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0대 총리' 아직은… '깜짝 발탁' 21일만에 낙마

40대 총리 탄생으로 세간의 시선을 끌었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깜짝 발탁' 21일 만에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물러났다.

파격의 기용이었던 만큼 기대도 컸지만 김 후보자는 인사 검증의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 애초 기대했던 여권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에서도 한발 물러난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평이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나씩 제기된 의혹들이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예고됐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외에 '스폰서' 의혹, 선거비용 10억원 대출, 부인의 뇌물수수, 불투명한 금전 거래와 재산관리 문제 등을 내세우며 전방위 공세를 벌였다.

청문회 초반,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아 여론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했지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김 후보자의 교체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던 와중에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 '결정타'가 터졌다. 청문회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만난 시점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청문회 답변보다 이른 2006년 2월에 박 전 사장과 같이 찍은 사진이 지난 27일 공개된 것. 여론은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전개됐고 결국, 김 후보자는 29일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총리직 사퇴 회견을 한 뒤 트위터에 글을 통해 "비는 내리고 어머니는 시집간다"라는 미묘한 소회를 남겼다. 이 글은 마오쩌둥(毛澤東) 어록에 나오는 '天要下雨, 娘要嫁人, 由他去(천요하우, 낭요가인, 유타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갈 테면 가라"라는 뜻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반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